

◎ “작은교회 목회자들의 아픔 위로 섬길 것”

제44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신임회장에 박효우 목사 선출



남가주한인목사회 제44차 정기총회에서 박효우 목사(왼쪽에서 다섯번째)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남가주 지역 4,500여명 목사들의 대표기관인 남가주한인목사회는 제44차 정기총회를 지난 11월 1일 풍성한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박효우 목사를 신임 회장, 김영대 목사(늘워중부 연합감리교회)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했다. 박효우 목사는 “부족한 자에게 회장직을 맡겨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한 목사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작은교회 목회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각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섬길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박 목사는 “한 달에 한두 교회를 선정해 약30여 명의 목회자가 함께 불신자를 전도하고 설교도 해주는 ‘폼앗이 전도’도 실시하며 작은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교회 달려, 전도지 등을 제작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과거 목사회에서 진행되던 중단됐던 목사회 회원증을 교단 추천을 받은 이들에게 발급하는 사업을 재개해 목회자 심방, 교도소, 경찰서 등 기관 방문 시 긴급히 필요한 신분증의 역할을 하도록 할 것과 남가주 목사의 상당수가 무임인 현실을 감안해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목사회 자체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

추기도 했다. 아울러 박효우 목사는 “전임 목사회 임원들이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들을 계승함과 동시에, 목회자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남가주 목회자 연합과 영적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월 1회 중보기도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박효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영대 목사의 기도, 김재연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총회는 이정현 목사(빛과 소금교회)의 개회선언, 김원락 목사(밸리제일장로교회)의 활동보고, 최선호 목사(메시야교회)의 감사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남가주한인목사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아이티 지진 대참사 구제를 위한 교계 공동모금캠페인, 남가주목회자 아이 러브 패스터(I Love Pastor) 캠페인, 부활절 연합찬양제, 목회자 탁구대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지재일 기자>

사진작가 허호씨 필리핀 등 빈곤어린이 사진담아



‘혼자가 아니에요’ 컴패션 사진 전시회

컴패션 미주본부는 지난 1일부터 7일(주일)까지 오픈뱅크(Open Bank, 회장 김민)에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극빈 아동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해 일대일 어린이 후원자들을 다수 모집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전시회를 위해 패션사진 작가이자 한국 컴패션의 후원자인 허호 씨(52)가 최근 1년 동안 컴패션의 후원 국가인 필리핀, 아이티, 태국 등을 방문해 빈곤 어린이들을 사진에 담았다. 컴패션 미주본부는 2일 밸런트 신에라, 가수 선·정혜영 부부, 주영훈·이윤미 부부와 함께 오픈뱅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에라 씨는 “진정한 나눔이란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껴서 듣는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빈곤 아동 돕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나눔의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다. 사진작가 허호씨는 “컴패션 아이들의 얼굴을 렌즈를 통해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세상 어떤 아름다움도 이보다 더 가치 있을 순 없다는 걸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사진전에서 나누고픈 이야기는 어린이들의 꿈, 그리고 가족들의 사연들”이라며 초청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에라 씨 등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9시까지 오픈뱅크에서 홍보 파티를 개최한다. 주영훈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파티에서는 선 씨의 신앙 간증과 찬양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진 전시회는 허호 작가의 작품 32점이 전시되고 있다. 문의) 562-483-4300 <지재일 기자>

CRC-예정합동, 40년만의 공식 교류 물꼬 트다

북미기독교개혁교회(CRC, Christian Re-formed Church of North America) 대표단이 지난 달 27일 예정합동 총회를 방문하고 양 교단의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독교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정합동 김삼

봉 총회장은 “양 교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교류를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RC 제리 다이스트라(Jerry Dykstra) 사무총장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남을 갖게 돼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다이스트라 사무총장

은 방향 소감으로 “한국 교회의 급속한 부흥의 배경에는 탁월한 리더십과 뜨거운 기도가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CRC 대표단이 예정합동 총회를 찾은 것은 40년만의 일이다. 총신대학교 사당동 캠퍼스 구 본

관 건물 신축 당시 CRC에서 3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당시 명신홍 박사가 미국으로 건너가 CRC로부터 건축 기금을 모금했다. 총신대 김영우 재단이사장은 “이번 교류는 그동안 단절됐던 양 교단이 역사적 개혁신앙을 재확인하고 발전을 위한 협력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미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남가주 동신교회 11/12(금)-11/14(주일)
창립 32주년 기념 부흥회
강사: 지용수 목사 (예정통합 전 총회장, 창원양곡교회)
2010년 11월 12일(금) 오후8시 / 11월 13일(토) 오전 6시, 오후 8시
11월 14일(주일) 1부(오전 8시), 2부(오전 10시), 3부(오전 11시30분), 오후 2시

담임목사 손병렬

교/회/약/도

남가주동신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92831 / T. 714-680-9556 / www.dongshinchurch.com

28일 기자회견... 범 종교, 지역으로 참여와 나눔 확대

더욱 풍성해진 '사랑의 쌀' 나누기



2010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위한 기자회견이 지난 28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박삼미 기자

올 연말 '사랑의 쌀'은 더욱 풍성하게 마련될 전망이다. 올해 사랑의 쌀 목표는 1만 5000포이며 이를 위해 기독교단체뿐만 아니라 성당과 사찰 등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마리아나, 에틀란타 등 타 주를 비롯하여 과테말라의 한인교단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마리아나, 에틀란타 등 타 주를 비롯하여 과테말라의 한인교단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사랑의 쌀 배부 대상은 LA의 사회봉사기관, 생활보호 대상자와 독거노인, 결식아동, 개인 신 청자 등 15,000명이며 LA에 있는 타민족에게도 사랑의 컵라면을 2000박스 나눔 계획이다.

사랑의 쌀' 모금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며, 12월 18일(토)과 12월 30일(목) LA총영사관 및 지정된 교회, 배부처 등 20여 곳을 통해 배부될 예정이다.

참여 단체와 교회는 '성탄절 한 가족 쌀 한포 10불 후원 캠페인'을 전개하며, 특별히 모금을 위한 음악회도 열릴 예정이다.

음악회는 12월 5일(주일) 저녁 7시 총현선교교회에서 개최되며 월드미션대 윤임상 교수가 '이웃 사랑을 실천한 불멸의 선지자(엘리아) 생애를 담은 오라토리오'를 선보인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 회장 박희민 목사는 "사랑의 실천 나눔 운동이 교민사회를 밝게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 되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올 해 모금액은 온전히 사랑의 쌀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밝혔다.

이번 나눔을 운동을 주최하는 남가주교협 회장 지용덕 목사는 "훈훈한 나눔이 훈훈한 감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0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지용덕 목사), 남가주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박용덕 목사), 오렌지 카운티목사회(회장 손태정 목사), LA총영사관(김재수 총영사),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주최하며 미주성시화운동본부(회장 박희민 목사)와 홀리클럽이 주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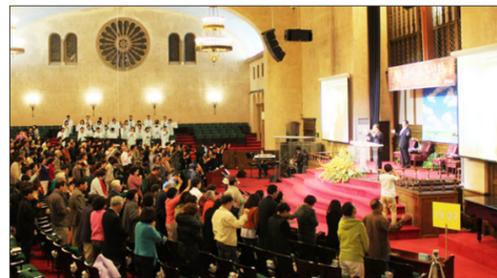
한편 지난해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의 총 모금액은 12만 4725달러로 당초 목표했던 쌀 5000가 훨씬 넘는 1만 50포를 배부했으며, 그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1만 5000포의 나눔 목표량을 정했다.

문의: (213) 384-5232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체크: (Pay to) Holy City-사랑의 쌀 <박삼미 기자>

정인수목사 "변화와 도약은 성령 받은 소수로"

'변화와 도약'을 위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전교인 부흥회가 지난 10월 26일~27일까지 정인수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PCUSA한국총회장)를 강사로 개최했다. 26일 저녁집회에서 '부흥의 하나님, 부흥의 교회(본문:창35:1-15)'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정인수 목사는 개인의 회복, 제단의 회복, 말씀의 회복으로 부흥을 설명했다.

부흥은 개인의 회복= 정인수 목사는 "불신자보다 신자 개인의 회복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자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무기력으로부터 회복될 때



나성순복음교회 전교인 부흥회. ©지재일 기자

교회와 나라의 영적인 도약의 물고를 뜨기 때문이다. 정 목사는 "위기는 언제든지 있었지만 각성과 회복, 변화를 위한 소수가 늘 남아있었다"며 "변화와 도약을 위한 소수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부흥은 제단의 회복= 정인수 목사는 "예배의 제단, 기도 의 제단, 말씀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단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정 목사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

을 때, 그 제단을 지켜가는 신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더불어 변화와 도약할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부흥은 말씀의 회복= 정인수 목사는 "생명의 역사는 말씀으로 일어난다"고 말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과 치유의 능력이 드러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목사는 "변화와 도약은 성령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한 소수가 주도한다"며 "하나님의 뜻을 감명하며 애동하여 회개하는 중보자로 다시 서라"고 설교했다.

<박삼미 기자>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High School 졸업생에게
* 짧은 현장실습을 통해 알찬 직업을 추천합니다.

LA ORT 대학 / 저소득층 영어 전액 무료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 직업 바로 추천

1. 기초영어 중, 고급 8개월 코스, 학비, 교재비 전액 무료
2.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3. 어카운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컴퓨터로 하는 어카운팅, 사무직, 비서직
4. 컴퓨터 그래픽과 데스크탑 출판, 컴퓨터로 하는 디자인, 드라프트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메디칼 오피스 스페셜리스트, 약사 보조직, 의사 보조직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유자격자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파산법

-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 신용 문제 상담

이민법

-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인 총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t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의 수천 건 해결

이문규 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콘길타워 1904호
822-510-5200

남가주 교협 창립 40주년 하나님께 감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지용덕 목사)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연합부흥회를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지난 27일 총현선교교회(민중기 목사), 28일 윌셔크리스천교회(엄규서 목사), 29일 벨열장로교회(변영익 목사)에서 열린 집회 강사는 소감석 목사(한국 새에덴교회 담임), 박희민 목사가 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교협은 40년사 발간을 위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진자료 등을 소장한 이들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 (323)735-3111.

남가주 교협 제41차 정기 총회는 11월 15일(월) 오전 10시 총현선교교회에서 개최된다.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가 3일 오후 5

40주년 기념 부흥회 후 오는 15일 정기총회 예정



정대 설교를 전했다. 지용덕 목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교협을 은혜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달 15일 개최될 정기총회와 내년 1월에 개최될 교협 회장 이·취임식, 교협 40년사 발간 등 모든 일정이

시가지 교협 사무실로 접수된 상태이며, 4일 오후 2시 교단 및 지역연합회 공천위원회 선정과 8일 오전 11시 공천위원회 모임이 열린 후 입후보자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지재일 기자>

크리스천 가정규범 ‘성령충만’으로부터

이상명 교수 “크리스천가정규범 ‘성령충만’ 으로부터”

크리스천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니, 문제가 있는 크리스천 가정이라면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이상명 교수(미주장신대 신약학)는 “부부가 먼저 성령충만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몸’을 이루는 부부지만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다. 즉 개인의 신앙회복, 성령충만의 문제다.

지난 10월 24일(주일)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에서 열린 ‘가정과 삶’ 6차 세미나에서 이상명 교수는 ‘신약성서시대의 크리스천 가정규범과 실천적 적용’을 강의했다. 구약성서시대(고대)의 가정으로부터 신약성서시대(그레코-로마시대)의 가정, 예수님 시대의 가정, 바울서신에 나타난 가정 등에 대해 두루 살핀 이상명 교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천 가정규범으로 첫째 ‘성령충만’ 둘째 ‘상호 복종(섬김의 사랑)’을 꼽았다.

구약성서시대의 가정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
“하나님은 가정을 구원사역의 주제로 사용”

창세기 첫 가정의 출범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인 동시에 축복 속에 이루어졌다(창1:27-28). 죄로 타락했지만 그 후에도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등 그의 가정을 통해 구속 사역을 지속하셨다. 이상명 교수는 “구약성서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가족 관련 용어로 묘사되었다”고 말했다.

신약성서시대(그레코-로마시대)

“가정은 단지 국가 최소단위로”
“사회질서가 가정에 투영, 가정의 지배가 용인”

그레코-로마 사회에서의 가정



24일(주일)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에서 열린 '가정과 삶' 6차 세미나에서 이상명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 박상미 기자

은 구약성서와는 달리 가정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며, 가정은 국가 존속을 위한 최소 단위로서 고려되었다. 때문에 사회 질서가 가정에 그대로 투영되어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가정 구조를 이루어 여성의 가치는 하

가정 창조는 신적 기원에 근거하여 가정을 가지는 것을 당연시 하였고, 자손을 낳는 것을 의무로 생각했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강했으며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의 부속물로 인식 되었다.

교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범세계적으로 뻗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이라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가정규범

“성령충만, 상호복종, 부부사랑”

크리스천 가정규범의 시작은 ‘성령충만’ 으로부터 시작된다.(엡 5:18) 또한 부부관계는 성령충만으로 인한 섬김의 사랑인 상호복종이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상명 교수는 “부부관계는 권력투쟁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상호복종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라 말했다.

‘머리’의 의미

이상명 교수는 이 밖에도 성경에 나오는 ‘머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모든 인간의 원천은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원천은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며 “머리의 의미로 남자는 사역이 아닌 여성이 유래한 원천 또는 출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상미 기자>



바울서신에 나타난 가정

“가족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

창게 여겨졌다. 이상명 교수는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관계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 가정은 당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적인 존재였을 것”이라며 “가정 안팎의 문제 속에서 가정에 대한 정립이 필요했을 것”이라 말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의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유사가족(fictive family) 개념에 기초한 가족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가족 개념 사용은 공동체의 내적인 응집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명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

메디케어 수혜자 들게 알립니다!!

CA LIC #0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헬스클럽 멤버십 • 해외여행
- 응급시 혜택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10k, 14k, 18k, 24k

최고가에 매입합니다

금매지 213-908-0854

축장한영 3960 Wilshire Blvd. #406 (월서+월턴)

www.ilovecpc.org

2010 남가주 열린말씀 컨퍼런스 섬김으로 부르심

11.12 (금) - 14 (주일)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 Tel.562)860-5451
11841 178th Street, Artesia, CA 90701

노진준 목사
세계교회 담임

한성운 목사
L.A.장로교회 담임

이국진 목사
필라 사랑의 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최정권 목사
행복함 침례교회 담임

정대성 목사
폴로리드 뉴라이프 선교교회 담임

박성일 목사
필라델피아 기쁨교회 담임

박영배 목사
뉴라이프 선교교회 담임

정민영선교사
미시간 디앤스도과 동행전담 선교사

특강 조엘 김 교수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열린말씀 컨퍼런스는 2002년 미주 동부에서 단순히 말씀 사역의 범위를 뛰어넘어 말씀을 통한 교회 개혁 정신을 공유하는 사역자들이 연합하여 시도된 새로운 형태의 말씀 컨퍼런스이다. 2009년부터는 필라델피아의 대불이 남가주에서도 컨퍼런스를 가지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강사들의 열정적인 헌신이 아니라 참가자들과 대화하는 분위기를 표방한 흥미로운 말씀 컨퍼런스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정씨는 권위주의를 탈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주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과 신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열린말씀’의 결실에 동의하고, 개교회의 부흥보다는 지역 사회와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건강한 사역자들이 구성되어 있다.

11월 12일(금) 저녁7:30
은혜로 주신 직분 / 담임1:12-17 (정대성 목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 담임4:6-16 (최정권 목사)

11월13일(토) 새벽6:00 / 특강 오전8:00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 담임1:3-7; 18-20 (이국진 목사)
특강 : 교회안에서의 여성의 역할 / 조엘 김 교수

11월13일(토) 저녁7:00
건강한 직분론 / 담임3:1-13 (정민영 선교사)
존경할 일, 경고할 일 / 담임5:17-6:2 (박성일 목사)

11월14일(주일) 오후4:00
열린말씀 좌담회 “섬기는 제자들”

[새벽강단 18] 세리투스장로교회 새벽예배

대속의 십자가, 은혜의 길로 돌아오라

한 주간 세상에서 바빴던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세리투스장로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의 새벽예배는 눈물의 바다를 이룬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또한 십자가 앞의 회개로 인하여. 개인의 경건은 물론이요 직분자들의 훈련,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토요일 새벽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스스로 목숨 걸고 지키는 예배가 되었다. “새벽기도가 힘들지만 하고나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김한요 목사의 간증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의 자리임을 모든 성도가 알고 있었다.

〈분문: 왕상 14:1~20〉
이민자들에게 왜 미국에 왔느냐고 묻는다면, 열의 아홉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민의 목적과 의미가 다음세대의 삶을 위한 소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의 자녀들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모두 죽어 무덤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게 말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자녀 중 유일하게 묘실이 있는 자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구속의 은총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되었

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구원이 달려 있다는 차원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은 팔자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여로보암의 비극은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 아프니까 걱정이 되어서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아히아 선지자에게 가서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눈을 뜨고 보

세리투스장로교회 토요일 새벽 ‘개인의 경건, 직분자 훈련, 자녀들과 커넥션’

지 않는 상태였지만 자신을 찾아온 여인이 여로보암의 변장한 아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자녀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아비야가 가장 복된 아이라고 할 정도로...여로보암은 말씀을 어긴 죄 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벌하셨다면, 자녀들이 없는 부모가 됐을 것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섬뚱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무엇인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주십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계기가 분명히 있

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경험으로 노후로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안의 모든 것이 깨끗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군데 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상태에서 정확히 말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분명 충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

달라고 마음의 빗장을 열 때 우리 영혼은 소생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을 쳐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쳐도 벌써 졌겠다...라고 깨닫게 될 때, 그러나 인내로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우리는 회개치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인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깨달았다면 가슴을 쓸어내리시고 빨리 은혜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박상미 기자)



김한요 목사

“GKYM 선교대회 통해 차세대 부흥운동 기대”

공동대회장 및 각 교회 EM, KM사역자들 연석회의 가져

오는 12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샌디에고 타운 앤 컨트리 리조트에서 열린 미주 한인청년학생 선교대회(Gkym Vision) 준비를 위해 남가주지역 청년사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설명회를 가졌다.

총무로 섬기는 손경일 목사(베델한인교회 예배채플) 사회로 진행된 이 설명회는 공동대회장인 임현수 목사의 인사와 준비위원장 김동환 목사의 선교대회 개요 및 프로그램 소개의 시간, 질의응답, 한어/영어 그룹별 모임의 시간을 가졌다. 김동환 목사(KCCC-USA 대표)는 “한어권과 영어권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점이 특색”이라고 밝히고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진정한 통일운동, 복음운동, 차세대 부흥운동이 불일듯 일어나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Gkym의 창설자이자 1차 대회 개최 및 이번 선교대회 공동대회장으로 섬기는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는 이번 3차 대회를 가주지역에서 시작하게 된 동기과 목적, 기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참석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샌디에고 한빛교회, LA한인침례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ANC), 베델한인교회, 디사이플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미주평안교회, 새생명비전교회, 브니엘교회, 세계 아가페선교교회, 열바인open Church, 에브리데이교회, 주님세운교회, 충현선교교회, 하늘빛선교교회, 동부사랑의교회, 다윗의 장막 등 20여개 교회에서 KM, EM 담당 사역자 4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다양한 현장 사역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참석한 청년 사역자들은 “집회 안에 집회(교회별 모임 등)도 과감히 없애고 모든 교회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으며, 한어·영어 그룹별 모임과 연합 찬양팀의 모임에서는 더 많은 활발한 의견들이 나누어져 이번 선교대회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높였다.

아래는 이번 대회의 진행 총체임을 맡고 있는 김동환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

▲이번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소개해 달라.

이번 ‘2010 미주한인청년학생 선교대회’는 미주에 있는 1.5세 2세 그리고 유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한인 청년학생들에게 선교의 시급성을 알리고 세계선교에 헌신하게 하기위한 대회다.

2년 전 나이아가라에서 처음 열린 대회에 2,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지난해 로체스터에서 열린 동부대회에는 2700명의 청년학생들이 모였다. 이번 대회에는 약 4,000명의 청년학생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쩌면 이민 역사상 최대의 청년축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이번 대회는 선교대회로 진행되지만 교포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이들 가운데 거대한 부흥운동의 계기가 되길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될 것이다. 흠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평생의 친구를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또 적령기의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기회도 주어진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한 한인 1.5세와 2세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이민교회의 최대 관심 중 하나는 차세대에 대한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민교회의 가장 큰 기도제목인 우리의 차세대 청년대학생들이 1세들이 이루어 놓았던 부흥과 성장을 이어갈만한 세대가 되길 기대한다. 선교에 대한 뜨거운 헌신과 성령충만의 체험 그리고 우정과 교제를 통해 다음세대의 영적 운동의 주역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것이 전 세계 흠어져 있는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교회와 지역사회에 협조 메시지 혹은 함께 하고 싶은 무브먼트(Movement)를 소개해 달라.

이번 대회는 한어권과 영어권이 함께 모이는 특별한 집회다. 저녁집회는 모두 함께 축제처럼 진행되어지고 그 외의 모든 순서는 한어권과 영어권으로 나누어져 본인의 언어로 은혜를 받고 훈련받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대 추수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다. 전교회(the Whole Church)가 전 복음을(the Whole Gospel)을 전 세계에(the Whole World)에 전해야하는 사명 앞에 그야말로 모든 교회가 동참해 주길 소망한다. 영어권, 한어권 대학부, 청년부 모두를 보내 달라.

이번 겨울수련회는 선교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교회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 청년학생들을 위해 대회 기간 중 자원봉사 할 이들도 찾고 있다. 선교대회 웹사이트(www.gkym.org)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은혜로운 선교대회가 되도록 동참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이기송 목사(213-210-8248 / keesong.lee@kcccla.com) (지재일 기자)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uente Hills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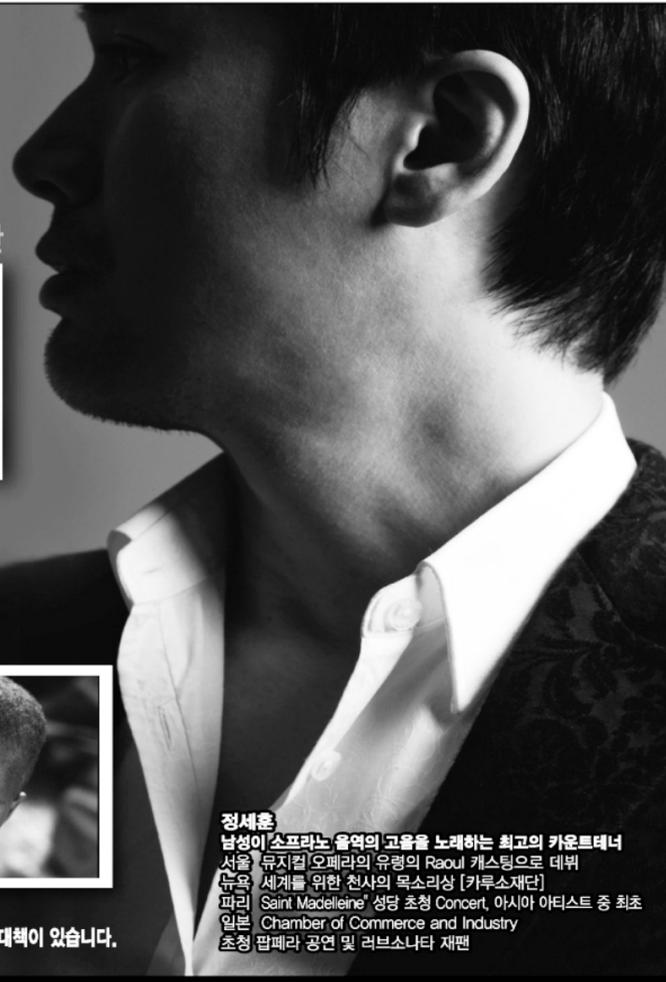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팝페라 카스트라토

젊어진 아프리카 부룬디 어린이들을 위한

정세훈의 선교 음악회



장소 : 워싱턴
11월3일(수) : 리치몬드 주 예수교회(배현찬 목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804)560-7500
11월5일(금) : 애난데일 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703) 941-4447
11월6일(토) : 볼티모어 벨렐교회(진용태 목사)
 3165 St Johns Ln, Ellicott City, MD 21042 (410)461-1235
아틀란타 **11월7일(주일)** : 아틀란타 예정
LA **11월10일(수)** : 오렌지 카운티 지역 예정
11월12일(금) : 나성한인감리교회(남강식 목사)
 433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20
 (213)385-6191

시간 : 오후 8시 - 9시30분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선교헌금시간과 어린이결연이 있습니다)
 선교헌금 : Payable to KAFHI
 문의전화 : 847-296-4555, 703-473-4696 선교국장 정승호 목사
 공동주최 :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KAFHI)
 특별후원 : 영신건강(주), 워싱턴 중앙일보
 후원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크리스찬뉴스위크, 미주크리스찬신문, 크리스찬헤럴드, 크리스찬투데이, 크리스찬파워, 기독교보, 미주복음방송.

국제기아대책(Food for the Hungry/FH)는 세계의 영적 육체적 굶주림의 종식을 위해 지구촌 75개국에 복음과 밥을 전하는 기아봉사단을 파송한 기독교대표 NGO 선교기구입니다. 국제기아대책은 행정비 9.3%를 제외한 전부를 굶주린 지구촌의 성경적 공동체개발을 통한 기아극복과 긴급구호에 실질적으로 사용합니다.(Charity Navigator 재공)



굶주린 지구촌 1/3 세상을 위해
Food for the Hungry/국제기아대책이 있습니다.

정세훈
남성이 소프라노 음역의 고음을 노래하는 최고의 카운트테너
 서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Raoul 캐스팅으로 데뷔
 뉴욕 세계를 위한 천사의 목소리상 [카루소재단]
 파리 Saint Madeleine 성당 초청 Concert, 아시아 아티스트 중 최초
 일본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초청 팝페라 공연 및 러브소나타 재팬

▶ 달라스연합교회 담임 김신일 목사

[기획 연재1] 한인 이민 교회와 선교적 정체성: 성서적 고찰을 중심으로



달라스연합교회 김신일 목사

전 세계 이민교회 사역자들이 돕기 위해 창립한 코딴(KODIM: Korean Diaspora Ministry)은 지난 10월 2차 서부 지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코딴은 세미나와 멘토링을 통해 이민신학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역자들이 목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분야별 강의를 요약, 기획연재 한다.

들어가면서

“이민자와 선교” 또는 “이민 교회와 선교” 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역사적, 사회적, 성서적, 신학적, 그리고 선교적인 접근 등) 들이 필요한데 본 세션은 그 중에 성서적 접근을 주로 시도하며, 이를 통해 이민 교회의 목회자들과 선교지도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이민자(이민교회) 정체성”을 선교적인 패러다임 하에 이해하고, 결국 선교적 교회를 향한 사역을 지향하도록 도우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논의는, “도대체 이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며 살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를 전제하고 싶습니다.

(1)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선 이민교회의 목회는 아무리 뭐라 해도 담임목사가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2) 또한 대부분의 이민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나의 한인 이민자 됨 (Korean Immigrant-ness)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Kingdom Business 하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또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신학적 (특히 선교 신

학적) 성찰이 충분치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3) 세 번째 전제, 나아가 이민 교회는 담임목사의 이 질문들에 대한 “선교 신학적” 회심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목회적 질문

오늘의 모임이 이민 목회자들을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자연스레 형성된 저의 목회적 질문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이민, 또는 이민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민자의 정체성이 선교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또 “우리의 한국화 된 기독교 신앙과 (Koreanized Christianity) 우리의 이민자 경험 (Marginality Experience) 속에 담겨 있는 세계 선교를 위한 잠재력을 어떻게 폭발 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결국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그 삶의 의미 (Meaning of Life) 를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므로 우리는 꼭 이 질문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정체성의 중요성

주지하다시피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 (Ecclesiology) 의 문제는 그 교회의 모든 존재방식과 사역방식을 결정짓습니다.

이민자의 삶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체성” (Identity) 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또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민자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여기, 이 이민자의 자리인가?” “하나님이 이민자인 내게 뭘 기대하시는가?” 등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은, 이민자들의 삶의 존재방식과 남겨진 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My Story / 변두리 경험 (Marginality Experience)과 정체성의 변혁 (Identity Transformation)

본인의 이민자 경험은 정체성의 중요성을 예시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역과 학업을 위해 캐나다 땅을 밟은 1997년 이래, 지금까지 캐나다와 미국 즉 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당장 보따리를 싸 돌아가고 싶은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제 안에는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혹시 내가 실수한 것 아닐까?”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간에, “혹시 내가 지금 이민 와서 사는 것이 실수 한 것 아닐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정말 한번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더 중요한 질문,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일까?

물론 또 묻습니다. 저는 이민자라면 이 질문들 앞에서 자유로울 분이 한분도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이민자로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은 해 왔지만, 앞선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저는 여전히 남의 나라 땅에서 소수 민족의 한 사람으로,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한명의 주변인에 불과했습니다.

“So what?” 의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뒹니다. 삶의 만족도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

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이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고백하며 이를 “정체성의 변혁” (Identity Transformation) 으로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이민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일어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민자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또 성경 속에서 이민자들의 삶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나아가 이민자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향해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는 “이민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특권이요 또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그 날 이후, 저의 목회적 섬김에는 “어떻게 우리들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민자 됨에 대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담겨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의 연구들과 경험들에 의하여, 그런 “정체성의 변혁” 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죠. 즉, 역사적 접근, 신학적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선교적 접근 등등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그 중에 성서적인 접근이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논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서, 우리의 한인 이민자 됨을 조금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틀 / 통과례 (Rite of Passage)

저는 여기에 이민자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식의 틀, 통과례 (Rite of Passage) 라는 개념 (Turner 1995:94) 을 소개하려 합니다.

흐리던 물체가 안경을 통해 보면 뚜렷해지듯이 오늘 이민자

떠남을 경험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고생하다가, 다시금 세 번째 단계로 잘 나아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실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이런 삶의 현실은 “Marginality as Forced Liminality” (이상현 1998:5) 로 불리우기도 하며 Getto 또는 Silent Exodus 현상 등이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Bevans, Stephen B. 2004 Models of Contextual Theology. Maryknoll, NY: Orbis Books. Choi, Hyo Sub (최효섭) 1995 “이민신학서설.” 한문 5(6):32-52. Hanciles, Jehu J. 2003 “Migration and Mission: Some Implica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Church.”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27(4):146-153. Lee, Jung Young (이정영) 1995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Lee, Sang Hyun (이상현) 1999 “Marginality as Forced Liminality: The Context of Asian American Christian Theology.” Unpublished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Schools in North America. Pp. 1-13. Whiteman, Darrell L. 2005 Anthropology and Mission: The Incarnational Connection. Chicago, IL: Catholic Theological Union. 김신일 목사 sinyilkim@gmail.com (다음호에 계속)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데이비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 북가주 지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UC Davis)에 위치한 데이비스한인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1982년 대학원생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교회로써 제자훈련과 세계선교를 꿈꾸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신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Qualification): 복음주의적 정규신학대학원(M. Div or Th. M 목회학 석사 혹은 신학석사)이상을 졸업하고 캠퍼스와 이민 목회 사역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수 있으신 분 교회에서 인정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영이권 사역의 중요성과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이중언어로 설교가 가능하신 분 지원서류 (Application Package) 1 이력서(사진포함) 2 본인/가족소개서와 목회비전서(한/영) 3 학위증명서와 안수증명서 4 추천서 3부 5 최근 섬기는 교회주보와 설교말씀 (영어와 한어 각각 1개씩) 제출처 : Davis Korean Church ATTN: Sr. Pastor Search Committee(청빙위원회) 603 L St. Davis, CA 95616 Tel: (916) 717-0769 청빙위원 e-mail: blessedare@gmail.com 제출기한 (Due date) : 2010년 10월 30일

남가주 최고의 정규 4년제 종합대학 월드 크리스찬 대학교 World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BPPE 승인 SEVIS 승인 I-20 자체발행 ABHE 가입 예능대학, 선교대학, 신학대학 탐정대학, 경찰/경호대학, 언론정보대학 World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주정부, 연방정부, 교육국 승인] 방문, 상용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 ESL, TOEFL 통신학부 수시입학 편입생 환영 Phone: [323]734.0227, [323] 734.4599, [213] 725.3007 Fax: [323] 734.0053, 2716 Ellendale Pl. LA CA 90007

케이프타운 서약, 로잔정신에의 헌신 강조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에서 도출된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 Town Commitment)'의 서문과 제1부가 로잔운동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신앙의 선언과 행동에의 요청(A Declaration of Belief and a Call to Action)'이란 부제로 발표됐다. 이



이번 제3차 로잔대회 문서인 '케이프타운 서약'의 초안 작성자인 영국의 크리스 라이트(Wright) 박사. ©로잔운동

서약은 제1부에서 로잔운동의 신앙 고백을 정리하고, 제2부에서는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제들과 교회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서문을 통해서 1974년 제1차 대회의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과 1989년 제2차 대회의 '마닐라 선언문(The Manila Manifesto)'으로 정리되어 있는 로잔정신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헌신을 재선언하고 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사랑한다(WE LOVE BECAUSE GOD FIRST LOVED US)

서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WE LOVE THE LIVING GOD)

성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영원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서약은 강조한다.

서문과 제1부 전문 공개... 신앙고백도 포함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시자, 또한 세상의 구원자"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며, 당신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그 정의로우심을 기뻐하며,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서약은 말하고 있다.

셋째,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한다(WE LOVE GOD THE FATHER)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서약은 밝힌다. 예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됐으며,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통로가 되어 상호적인 사랑의 주고 받음을 가능케 했다.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깊은 성경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서약은 설명한다.

넷째,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다(WE LOVE GOD THE SON)

SON)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 하셨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우리에게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세주임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서약은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권능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지배하시며,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섯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WE LOVE GOD THE HOLY SPIRIT)

서약은 또한 삼위일체의 연합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사랑함을 밝히며, 성경의 증거 없는 우리의 믿음, 기도, 선교는 인간의 노력에 지나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성령의 열매 없이 우리의 삶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반영할 수 없다"고 서약은 확신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WE LOVE GOD'S WORD)

한편, 서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뤄진 성경이 영감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임을 믿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성경은 마지막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

일곱째,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한다(WE LOVE GOD'S WORLD)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쁘게 즐겨야 한다고 서약은 밝힌다. 서술에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이 항목은 이번 문서에서 특별히 눈여겨 볼 만한 점으로, 환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서약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책무임을 일깨우고 있다.

여덟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한다(WE LOVE THE

GOSPEL OF GOD)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며,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고 서약은 말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 안에서 은혜이며, 이 복음의 은혜를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한 열정이다.

아홉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WE LOVE THE PEOPL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도록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서약은 강조한다. 또한 이는 바람직한 선택 정도가 아닌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서약은 밝힌다.

열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WE LOVE THE MISSION OF GOD)

서약은 끝으로 세계 선교는 "하나님과 성경, 교회 그리고 인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핵심되는 이해"라고 설명하며, 세계 선교에 헌신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것을 연합시키고 화해시키는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죄와 악으로 인해 분열된 세상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서약은 이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드러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점을 천명했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로잔 언약과 마닐라 선언의 초안을 작성한 존 스토틀 목사가 설립한 국제협력파트너십(Langham Partnership International) 국제총재인 크리스 라이트(Wright) 박사가 작성했다. 이외에도 미국/영국 싱클레어 퍼거슨, 영국 로즈 도우셋, 스리랑카 아지스 페르난도, 이집트 아테프 젤다, 브라질 만프 레드 그렐러트, 미국/크로아티아 피터 쿠즈믹, 호주 피터 젠슨, 케냐 에스터 몸보, 짐바브웨 빅터 나카, 자메이카 라스 뉴먼, 미국 존 파이퍼, 아니지리아 유수푸 투라키, 홍콩 카버 유 박사가 이번 문서에 참여했다.

(순현정 기자)

도시로 모여드는 세계 인구, 교회는 준비돼 있나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도시 지역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만큼 복음 전도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뉴욕 리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 ©로잔운동

도시 선교 전문가 팀 켈러 목사는 지난 제3차 로잔대회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도시에 집중해야 할 이유를 이같이 제시했다. 현재 맨하탄에서 가장 큰 교회인 리더머 장로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는 도시 교회 개척 전문가이기도 하며, 미국과 세계 도시에 100개의 교회가 리더머 장로교회의 도움으로 개척됐다.

그에 따르면 불과 40년 전만 해도 세계 인구의 3% 이하만이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오늘날은 절반 이

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게 도시로 나오게 된 이들은 오래 전부터 속해 있던 연대감에서 멀어지게 되고, 보다 다원화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상대적으로 복음에도 더

제3차 로잔대회서 도시 선교 중요성 강조

상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 매 2개월마다 8백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교회는 인구 이동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켈러 목사는 지적했다. 그는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있어야 한다"며 "사람들은 도시로 움직이고 있으며, 여러분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곳으로 가기 원한다면 따라서 도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의 한편 오늘날 복음이 가장 닿기 힘든 계층인 젊은 성인들, 그리고 비지니스 지도자들과 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장소라고 켈러 목사는 강조했다. 이들 중 대다수가 도

개방적이게 된다고 켈러 목사는 설명했다.

켈러 목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에 사는 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있으며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 원한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담대한 용기를 주문하면서 켈러 목사는 "이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직자"라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우리의 도시들이 필요로 하는 성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로 우리 또한 가지"고 그는 강조했다. <순현정 기자>

오토뱅크 Auto Bank

1만달러 이하 중고차만 사고 팝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차를 찾아드립니다.

충분한 워런타기간 / 고장시 지정 정비소 통한 수리 (80%DC)

John Ko
213-908-3308
http://joencha.com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www.rosehills.com

저렴한 가격과 가까운 장례식장을 원하신다면...

품격있는 명품 장례식- 로즈힐 장례 서비스

한국인 직원들이 한국어 서비스로 편리하게 도와드리며 로즈힐만의 100여년 전통과 노하우로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 LA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한인 장례 매니저의 친절한 맞춤 서비스
-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6개의 아름다운 채플
- 종교에 따른 다양한 예식 • 저렴한 장례 관 가격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970

본사(한국어 직통) | 1-888-848-8707 브레이크점 | 562-809-7027
세리토스점(한국어문의) | 1-877-767-8850 장의 & 장례보험 562-809-7027

www.rosehills.com

저렴한 가격과 가까운 장례식장을 원하신다면...

품격있는 명품 장례식- 로즈힐 장례 서비스

한국인 직원들이 한국어 서비스로 편리하게 도와드리며 로즈힐만의 100여년 전통과 노하우로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 LA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한인 장례 매니저의 친절한 맞춤 서비스
-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6개의 아름다운 채플
- 종교에 따른 다양한 예식 • 저렴한 장례 관 가격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970

본사(한국어 직통) | 1-888-848-8707 브레이크점 | 562-809-7027
세리토스점(한국어문의) | 1-877-767-8850 장의 & 장례보험 562-809-7027

세계 교계 지도자들, 이라크 교회 공격 비난

▶ 최소 58명 사망 참사·희생자에 애도 표명

세계 교계 지도자들이 지난 주 일 발생해 1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목숨을 앗아간 이라크 교회 공격 사태를 규탄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라크 내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이라크 이슬람국가(ISI-Islamic State of Iraq)' 소속으로 추정되고 있는 무장괴한들은 이날 미사가 진행 중이던 성당에 난입, 1백여 명의 성직자들과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교인들을 붙잡고 5시간여 동안 인질극을 벌였다.

현지 보안군이 인질 구출을 위

해서 성당으로 진입하려 하자 괴한들이 총을 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최소 58명이 숨졌고 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인질 석방 조건으로 무장괴한들은 알카에다 요원들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사건 직후 ISI측은 이집트 콕트 교회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여성 2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이들을 풀어 주지 않을시 이라크 내에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황 베네딕

토 16세는 "하느님의 집에 모인 비무장 민간인들이 부조리하고 흉포한 폭력 행위에 희생됐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올라프 트비트 총무도 "이라크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며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을 지닌 모든 이들이 이라크 시민들, 그 가운데서 특히 약자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들에 대한 우리의 연대감을 전한다"며 "부상당한 이들을 위해서도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몇 년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공격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모술에서의 연쇄 교회 공격으로 8명의 교인이 숨졌다. 2008년에는 칼데아 교회 파라즈 라흐 대주교와 아시아리아 정교회 아델 유세프 신부가 차례대로 납치돼 살해됐으며, 모술과 키르쿱, 바그다드 등지에서 폭탄 테러로 12명의 교인들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손현정 기자)

에디 롱 목사 공식 반박 "고소 취하해 달라"



에디 롱 목사.

1일 공식 문서 통해 "성적 접촉 없었다"

최근 에디 롱 목사(뉴버스미셔너리침례교회)측은 자신을 둘러싼 4명의 고소에 대해 제출한 문서에서 성적 학대를 했다는 것을 공식 부인하고,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주장했다. 롱 목사 측은 "절대 고소인들과의 성적 접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롱 목사의 대변인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적 학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각각 3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작성해 구체적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다.

뉴버스미셔너리침례교회의 교인이었던 4명의 고소인은 안토니 플렉(21), 모리스 로빈슨(20), 자말 패리스(23), 스펜서 레그랜디(22)이며, 수년 전 10대였던 그들에게 보

석 및 차, 집, 현금을 제공하며 여행에 함께 동행해 성적으로 유혹했으며 권위를 악용하여 성적 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 9월 고소했다.

11월 1일 조지아주 디캡카운티에 소환의 일환으로 공식 문서를 제시한 롱 목사 측은 "남성 롤 모델이 없이 자라난 10대 청소년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해 왔다. 학교나 일자리에 타고 갈 차가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차를 제공했고 고소인 레그랜디의 경우, 그의 학교에 기숙사가 없었기 때문에 호텔방을 제공해 주었고, 플렉의 경우 어머니의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개인적 사정으로 집을 제공해 줬다"고 밝히고 있다. 롱 목사는 또 "여행에 함께 동행하는 기회를 제공했고, 교육과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교인들을 격려했다"고 반박,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의 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과 여행 중 같은 방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으나 성적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롱 목사는 뉴버스침례교회 예배를 통해 이 같은 법정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롱 목사의 대변인 아트 프랭클린은 CNN에서 "이번 법정 소송은 롱 목사의 신뢰문제를 건드려 돈을 강탈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권나라 기자)

달린책, 힐송 처치 떠나 새교회이끌예정



호주 힐송 처치에서 워십 리더로 섬겨 온 달린 책 목사가 새로운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힐송 처치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린 책 목사는 시드니 인근에 있는 오순절과 교회인 처치 언리미티드(Church Unlimited) 담임목사로 부임해 남편인 마크 책 목사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목회할 계획이다.

달린 책 목사는 브라이언 휴스턴, 보비 휴스턴 목사 등과 함께 지난 25년간 힐송 처치 워십 리더로 활약하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름

을 알리게 됐다.마크 책 목사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달린은 워십 리더로서 사역해 왔지만 목회자로서 지역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늘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이 감사하며, 새로운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매우 설렌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모든 이를 위한 교회를 만들어가려 한다"며 "하나님께 자로서 지역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한 시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처치 언리미티드는 몇 개월 전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시작했다

(손현정 기자)

며, 달린 책 목사를 새 담임목사로 예정한 데 대해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선택을 따르는 것이었고, 그렇게 된 것으로 믿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힐송 처치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책 목사 부부에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축복했다.

"달린과 마크는 우리 교회에서 오랜 기간 섬겨 왔으며 이에 대해 감사한다"며 "그들은 우리 교회의 진실한 가족이었으며 그들이 분명 그림자였지만, 이는 그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록 힐송 처치를 떠나지만 달린 책 목사는 곧 발표될 라이브 앨범을 포함해서 힐송 처치의 찬양과 워십 사역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참여한다.

월드비전,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 구호 활동 박차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이 지금까지 4차례 폭발한 가운데, 5만 명이 넘는 화산 피해자들에 대한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활동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메라피 화산이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 57,000명의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리고 53개의 대피소에 분산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의 대피소에 한꺼번에 많은 이재민들이 몰리면 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산 폭발 직후 15,000개의 마스크를 제공하며 구호 활동에 나

메라피 화산 피해 아동들 고열, 감기 등 걸려

상태이다. 특히, 지난 주말 화산재가 섞인 소나기가 내리면서 아동들이 고열, 감기, 설사병으로 고생하

는 월드비전 인도네시아 긴급 구호팀은 첫술, 치약, 의류, 담요 등이 담긴 1,000개의 가정용 구호 키트와

비누, 오일, 파우더 등이 포함된 별도의 아동용 키트 1,000개를 대피소에 제공했다. 또한 이동식 도서관을 운영해 대피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학습을 중단한 아동들에게 책과 함께 간단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1천 개의 간이 식수통을 각 대피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월드비전 인도네시아 지미 나다담(Jimmy Nadapdap) 긴급구호팀

장은 "소나기로 인해 공중의 화산재가 씻겼지만 이로 인해 병에 걸린 아동들이 늘어났다"며 "현재, 메라피 화산이 있는 멘타와이(Mentawai)섬의 기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구호 물품은 인근 파당(Padang)시로부터 소형 항공기를 사용하거나, 8시간 정도 걸리는 페리를 이용해 피해 현장으로 운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월드비전 긴급 구호팀은 인도네시아 정부, 그리고 현지 구호기관과 협력해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처음 폭발했던 메라피 화산은 지난 1일 오전 10시경, 다시 폭발해 지금까지 4회에 걸쳐 화산 폭발이 일어났으며, 현재까지 38명이 사망하고, 5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월드비전은 전세계 10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기관으로서, 전체 모금액의 11.4%(2009년 기준)만을 행정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모금액의 효과적인 사역으로 지구촌 아동들을 돕고 있다.

(조요한 기자)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로스엔젤레스교역자협의회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로스엔젤레스 교역자협의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로스엔젤레스교역자협의회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비영리단체 등록번호 #2198779
 미연방정부 면세번호(Federal Tax I.D. Number)
 #95-4822611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으십니다.

로스엔젤레스교역자협의회

The Council Korean Churches in Los Angeles
 회장 : 표세흥 목사, 증경회장 류당열 목사 ☎ (213) 718-1512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11월 8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기획특집

개척 3-4년만에 200명 이상 중형교회로 성장한 애틀랜타 교회들(2)

비전공유 · 2세 투자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이끈다

최근 애틀랜타 지역에서 작은 교회의 장점을 백분 발휘하며 급격한 외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개척교회들이 눈에 띈다. 본지에서는 예수소망교회, 한비전교회, 화평장로교회 담임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인터뷰 해 세 교회가 성장하게 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해결해 가야 할 과제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다음 글은 그 두 번째 연재다.

편집자 주

〈하나의 비전 공유한 목회자와 평신도〉

교회성장의 요인으로 세 교회 목회자가 꼽은 두 번째 요인은 '평신도 리더들과의 비전공유'다. 이민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상명하달 식의 일방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시대와 호응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세 교회는 목회자가 가진 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었다.

예수소망교회 박대웅 목사는 "목회자의 비전과 하나된 교인이 있다면, 그 수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목회자와 핵심 리더십의 비전과 꿈이 공유되고 일치될 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로서 환경적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쫓겨나는 생활 속에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을 공허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실 만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믿음과 꿈, 그 사역에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비전이 되면 비

로소 교회는 하나되고 발전해 간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 목사는 "교회 비전을 공유하는 평신도 리더를 세운다"는 목회 철학을 기반으로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은 모두 평신도 리더들에게 맡기는 편이다. 박대웅 목사가 말씀은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주력한다면 교회 일들은 거의 다 평신도들이 한다. 혼자 일하게 하지 않고 꼭 팀을 구성해 참여하게 하는데, 이 가운데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리더십 발휘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계획하는 가운데 대화와 소통의 방법도 배우게 된다. 화평장로교회 조기원 목사는 "교인들이 교회에 나가야 할 방향이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가장 큰 전제는 목회자가 겸손하고 운운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 하며, 그 다음 목회 철학이 공유되어야 한다. 그것은 설교와 훈련에서 나오고 목회자의 평소 언어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그는 성도들과 하나되어 비전이 공유되지 못하면, 목회자는 관계문제와 정치적 문제로 진을 다 빼 버리게 된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개척교회임에도 2세 사역에 큰 비중〉

이민교회의 특성상 1세와 2세의 다이나믹한 관계는 교회의 성장 혹은 퇴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성장하는 세 교회는 모두 2세 사역의 비중이 상당했다. 1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공되는 단순한 '베이비 시팅'을 넘어서, 2세들의 신앙을 튼튼히 세워 주고 나아가 미래 교회 성장의 주역으로 양육하기 위한 열정과 투자가 결국은 1세들을 교회로 이끄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 비전교회 이태호 목사는 교회의 수적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 중에 2세 사역자와 연합과 일치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특별히, 영어부 담당인 한동윤 목사는 이태호 목사가 오를라호마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할 당시 만나 현재까지 함께 사역해 오고 있는 깊은 인연이다. 이태호 목사의 제자로 성장한 한동윤 목사는 결국 목회 비전을 받아 한비전교회에서 목회자로 안수 받았고, 여느 가족보다 끈끈한 사랑과 신뢰관계로 2세들은 물론 1세인 부모들까지 영어권 사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각별하

도 성장했을 때 안정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목사는 "복음화와 제자화에 대한 교회의 목적과 비전만 분명하다면 프로그램이나 방법은 융통성 있게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제자훈련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교회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척교회임에도 2세 사역에 큰 비중〉

이민교회의 특성상 1세와 2세의 다이나믹한 관계는 교회의 성장 혹은 퇴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성장하는 세 교회는 모두 2세 사역의 비중이 상당했다. 1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공되는 단순한 '베이비 시팅'을 넘어서, 2세들의 신앙을 튼튼히 세워 주고 나아가 미래 교회 성장의 주역으로 양육하기 위한 열정과 투자가 결국은 1세들을 교회로 이끄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 비전교회 이태호 목사는 교회의 수적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 중에 2세 사역자와 연합과 일치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특별히, 영어부 담당인 한동윤 목사는 이태호 목사가 오를라호마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할 당시 만나 현재까지 함께 사역해 오고 있는 깊은 인연이다. 이태호 목사의 제자로 성장한 한동윤 목사는 결국 목회 비전을 받아 한비전교회에서 목회자로 안수 받았고, 여느 가족보다 끈끈한 사랑과 신뢰관계로 2세들은 물론 1세인 부모들까지 영어권 사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각별하



(위) 한비전교회 제 1기 제자훈련 졸업생의 모습(가운데 이태호 목사) (아래) 화평장로교회 제 2기 남자제자반의 모습(가운데 조기원 목사). 제자훈련을 통해 탄탄한 평신도리더 양성을 비전으로 세 교회는 제자훈련을 기반으로 교회 비전의 공유를 부흥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다. 덧붙여 이 목사는 "이민교회는 1세와 2세가 하나되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된다. 부모들이 2세를 위해 이민 오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올바른 이민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2세 사역과 1세 사역이 하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비전교회 조미정 집사는 마리 에타에서 스와니 한비전교회까지 오는 열성 있는 교인이다. 그녀는 "교회가 멀어 자녀들은 가고 싶은

교회를 가라고 해도, 아이들 스스로 신앙적으로 잘 세워진 한비전 교회를 출석한다. 부모로서 영어와 한국어가 완벽하고 신뢰가 가는 2세 사역자가 있어 안심된다"고 말했다.

예수소망교회는 한어권 사역과 영어권 사역의 비중을 반반씩 두고 있다. 유아부,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모두 따로 운영되고 영유아부와 유초등부에는 선생님만 각각 5명, 3명이며 전임 전도사는 유초등부와 중

고등부에 각각 1명씩 두고 있다. 아직 2세 청년부를 맡아줄 전임사역자는 없지만, 곧 청빙을 계획하고 있다.

박 목사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1세 사역만도 버겁기 때문에 2세 사역을 한 권에 미루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어권 2세들에게 더 많은 투자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화평장로교회 조기원 목사는 2세 사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어권과 영어권이 독립적 모델로 유지되는 넥스트도어체치의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대학에 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유스 사역에 대한 특별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태호 목사와 박대웅 목사는 평신도였다가 40대, 30대 후반에 각각 부르심을 받고 늦깎이 목회자가 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태호 목사는 "아직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식지 않았을 때 목회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평신도에서 목회자가 된 것이 목회에 가져오는 장점에 대해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예수를 믿고 난 후의 변화를 뚜렷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 양 쪽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웅 목사는 "사회생활을 통해 더불어 일하는 것이 익숙하고, 성도들의 삶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속)

〈권나라 기자〉

애틀랜타복음화대회, 이민자를 위로하다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장석민 목사)가 주최한 애틀랜타복음화대회가 28일(목)부터 31일(주일)까지 임파뉴엘감리교회(담임 신웅철 목사)

와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석민 목사(애틀랜타교회협의회 회장)는 인사말을 통

해 "세계 경제 불황 여파로 삶의 고뇌가 얼굴에 깃들여 있을 때, 복음화 대회를 통해 희망찬 미래를 여는 축복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복음화대회 강사로서 초청된 장학일 목사(예수마을교회)는 경제적인 불황이 이민자의 애환과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이때, 자칫 놓쳐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무한

한 자유를 가질 것을 권면했다. 장 목사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 찌리"라고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형상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 어렵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인생은 늘 역전으로

가득 차 있다"며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28일에는 심호섭 목사가 대표기도, 박정근 목사(지구촌감리교회)가 성경봉독, 장학일 목사가 설교, 송상철 목사(새한장로교회)가 축도했다. (권나라 기자)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 우 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를 10년동안 하다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쁜시간들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7일 오전 9시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8일 오전10시~11시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여 상금도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 일 : P.O.Box742017 Los Angeles, CA 900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현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예배 오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당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T. (213)-975-1111 / F. (213) 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사랑의방주교회
 담임: 방익수 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중고등부예배 오후 3:30 (매일 첫째주 월-목)
 금요철야예배 오후 8: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4:00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 (714) 595-5279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더운터문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 오전 6:00
 2부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쉽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증앙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의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준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615 shatto place, LA, CA 90005
 T. (213) 249-9191 / F. (213) 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토)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중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음)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방)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화-토)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김동권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 공식 선언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인 김동권 목사(진주교회)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이번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현 대표회장으로서 재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이광선 목사와, 이미 예장 합동 정기총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길자연 목사와 더불어 3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

며 “한기총을 위해 반드시 봉사할 시기임을 깨닫고 사명감과 소명의식에서 후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현재 예장 합동측에서는 길자연 목사가 정기총회에서 투표 끝에 후보로 선출돼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때문에 김동권 목사가 출마하게 되면 합동측 표가 분산돼 양측 모

이광선·길자연 목사와 더불어 3파전 예상



김동권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상된다. 김동권 목사는 1일 합동총회회관에서 WCC대책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합동 총회장인 김삼봉 목사, WCC대책위 위원장 서기행 목사, 총무 홍정이 목사 등이 배석했다.

김동권 목사는 이 자리에서 “제95회 총회 이후 오늘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출마 여부를 심사숙고했다”

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동권 목사는 “본인이 봉사하겠다는 사명에서 때문이지 누군가의 표를 빼앗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다”라며 총 200여 표 중 합동측 표가 20여표이므로 합동측 표가 갈라지는 것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류재광 기자〉

북한인권 첫걸음, 눈물과 무릎으로 드리는 기도

굶주림과 억압에 찌든 북한 주민들을 위한 북한인권 기도대성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주최로 3일 서울 신당동 신일교회(담임 이광선 목사)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G20 정상회의 기념 북한인권 기도대성회

을 시작했다. ‘북한 동포들에게 인권회복과 식량을’이란 슬로건으로 1천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기도대성회 첫날 일정은 제1부 예배 ‘한국교회여 깨어나라!’와 제2부 기도회 ‘북한 동포의 고통을 기억하며... 통곡하라!’ 순서로 진행됐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와 소련 스탈린의 대학살을 이미 넘어선 북한 정권을 고발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이번 기도대성회는 오는 11-12일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담 기간 ‘북한인권주간’을 실시하겠다는 이광선 대표회장의 선거 당시 공약에 따라 기획됐다.

대회사한 이광선 대표회장은 “북한인권은 아주 심각한 국제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범국민 기도운동을 펼쳐 나가자 한다”는 말을 일회성 집회가 아님을 천명했다.

이 박사는 특히 “북한인권법과 3천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중 탈북고아 임양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자 한다”며 “북한인권 기도대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북한 위정자들의 변화가 있을 간절히 희망한다”



이번 북한인권 기도대성회가 열린 신일교회는 빈 자리 없이 성도들로 가득했다. ©이대용 기자

고 전했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첫걸음은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무릎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들은 현재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북한의 참상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예배 설교는 오랜 기간 북한 구원운동에 앞장선 이종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서울교회)이 맡았다. 이종윤 목사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고유의 인권을 존중한다”며 “아담 이후 인간은 타락해 인권을 논할 처지가 못 됐지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 형상을 회복됐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 박사는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인권을 논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회복돼야 하는 게 먼저”라며 “현재 북한은 이기심과 자아 중심의 인본주의로 찌어 있으므로, 인권회복 이전에 자아 중심의 삶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행위에서 보이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을 포함한 한반

도에 ‘복음화된 통일 조국’이 이뤄지길 소원하고, 우리 헌법에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선포했으니 북한에 ‘우리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20개국이 함께 북한의 신앙 자유와 인권 회복을 위한 결의문을 선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상수 대표(한나라당)의 영상메시지 이후 격려사한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하나님은 국가를 만드시기 훨씬 전에 인간을 만드셨고, 국가는 인간을 위한 하나의 제도일 뿐인데 정부가 인간을 핍박한다면 그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 교회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켜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중인 황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만들지 못했는지 한탄스럽다”며 “교회가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마땅히 명해야 하

고, 이를 게을리하려는 의원들에게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황우여 의원은 이어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론자들의 두 가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나는 ‘북한이 싫어하는 걸 왜 만드느냐’인데,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오히려 북한이 싫어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고, 이에 침묵한다면 북한의 불법에 동조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해 봤자 실효성이 없는데 왜 만드는가’ 하는 질문에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우리가 북한 동포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선언해야 하고, 모든 크고 작은 운동은 이같은 선언에서 시작되는 법”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성도들은 한 탈북 전도사의 간증과 북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동영상과 보며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다. 이후 ‘북한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김중석 목사)’, ‘북한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김규호 목사)’, ‘30만 탈북자를 위하여(이홍희 교수)’ 등을 놓고 통곡기도회를 가졌다.

〈이대용 기자〉

“오늘날 의료 발전, 주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자”

연세대학교 의료원(원장 이철)은 창립 125주년을 맞아 11월 한 달을 ‘의료선교의 달’로 정하고 3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선교의 달 선포식 및 의료선교사와 함께 하는 체플’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선 연세의료원

동문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 의료원장이 의료선교의 달을 선포했고, 참석자들이 연세의료선교 사명선언을 낭독했다. ‘의료와 선교, 다시 생각해 봅시다’를 제목으로 설교한 김시찬 선교사는 “의료선교사를 넘어 연세의료인 모두의 정체성을 다시 확

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지금의 의학적 발전과 성취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이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많은 의

사들이 자신과 의료의 능력으로 환자가 치료될 수 있다고 믿지만 의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환자에 임하도록 돕는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세의료원은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한다.

〈김진영 기자〉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3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선교의 달 선포식 및 의료선교사와 함께 하는 체플’을 개최했다. ©김진영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탈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전세계 석학·목회자들이 본 '환경직 목사'

“평화 위하고 영혼육 모두를 돌본 목회자”

50여개국 107명의 전세계 석학 및 목회자들이 열린 강연과 토론을 벌이고 있는 환경직 목사 추모 10주기 기념 제3회 국제 평화·화해 컨퍼런스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3일 서울 저동 영락교회(담임 이철신 목사)에서 주요 강연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환경직 목사가 시무했던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철신 목사를 비롯해 프린스턴대학교 이안 토렌스(Iain R Torrance) 총장, 지난 6월 WARC와 REC가 통합된 WCRC(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세트리 나오미(Setri Nyomi) 사무총장, 백인임에도 남아프리카에서 넬슨 만델라, 데스몬드 투투 주교와 함께 인종차별정책에 맞서 싸우다 장애를 얻은 마이클 랩슬리(Michael Lapsley) 성공회 신부, 화해와 포용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해온 예일대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철신 목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환경직 목사님에 대해 말할 때 청빈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한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의 화해, 특히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화해에 일생을 바치신 분”이라며 “이같은 한 목사님의 정신이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간, 그리고 사회의 통합과 화해에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컨퍼런스 기자회견 장면. 맨 오른쪽부터 볼프 교수, 랩슬리 신부, 토렌스 총장, 나오미 사무총장. ©이대웅 기자

마음으로 컨퍼런스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환경직 목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외 인사들은 환경직 목사의 사역에 대한 목소리로 “전도와 교육 뿐만 아니라 구제까지 영혼육의 사역을 두루 다루셨던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또 비무장지대와 군사시설을 방문하고 강한 인상을 받았으며 남북한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조언도 곁들였다.

토렌스 총장은 “한 목사님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시는 분이요,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실제적이고 뭔가 다른 일들을 해냈다”며 “고아원을 세웠고 노인을 돌보았으며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줬으며, 심지어 북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보냈다”고 전했다.

나오미 사무총장은 “한 목사님의 화해와 평화 사역은 그의 깊이 있는 신앙에서 나왔고, 복음이 전파되면 어느 곳이나 변화될 것을 확신했기에 나올 수 있었다”며 “그러했기에 냉전 속에서도 북한에 사랑의 쌀 보내기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이를 보면서 우

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랩슬리 신부는 “감사한 것은 환경직 목사님이 어려서 질병과 가난을 경험했고, 일제 시대와 북한 정권이 들어선 후 불의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했던 점”이라며 “특히 일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었고,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여겼던 정신 등이 희망과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볼프 교수는 “한 목사님은 전도와 교육, 구제 등 영·혼·육의 중요한 사역들을 모두 다루셨다”며 “지금 우리가 사는 복잡한 사회는 당시와 조금 다르지만, 이 가운데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모든 사역을 함께할지 한 목사님을 보면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오미 사무총장은 특히 최근 통합 출범한 WCRC를 놓고도 “이러한 연합 자체가 화해의 상징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점은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 교훈이 될 수 있고, 남북한 통일에 밑

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랩슬리 신부는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전쟁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한국에 와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많이 들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한반도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하는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는 통일이 이뤄지고 난 후이길 바란다”며 “한국이 이를 통해 전세계의 피스메이커가 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전날인 2일에는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가 환경직 목사의 화해와 평화 사역에 대해 강연을 전하기도 했다.

조용기 목사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며 “이해는 내 주장만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장 비결을 묻곤 한다”며 “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늘 들으려 했고 가족 같이 용서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곤 했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성장동력은 치유 사역, 대담한 건축, 지도력에 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김인환 목사)이 주최하는 ‘2011 기획목회 사역설명회’가 1일 서울 종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전국 목회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지역사회를 향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목으로 발표한 정성진 목사는 “개혁 초기부터 두 날개라는 모토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다. 두 날개는 영혼구원과 사회구원이었다”며 “교회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을 잊고 교회 성장만을 바라보면 결코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대개 개혁 때는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남을 도울 여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나는 첫 해부터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다”며 “만약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돕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사탄은 작은교회 목회자들에게 ‘이 다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그룹 리메이크’를 제목으로 발표한 서길원 목사는 “교회 조직을 정비하던 중 매우 취약한 조직을 발견했는데, 바로 속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회의 대안인 소그룹의 장점을 설명한 서 목사는 기존 속회라는 명칭을 목장으로 바꾸고, 내용면에서도 교제 변경과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형성, 소그룹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변화를 꾀했다.

서 목사는 “속회에서 목장예배로 리메이크를 시도한 후 소그룹 모임 참여인원이 6개월 만에 45.2%가

늘었다”며 “소그룹 활동 강화에도 효과적이었지만 새 가족의 정착에도 큰 역할을 했다. 드디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맛을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형교회로 성장하는 전략적 접근’을 제목으로 발표한 이상대 목사는 자신이 목회하는 서광교회의 성장 과정을 예로 들며 개혁 및 미자립교회가 중형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을 설명했다.

이 목사는 “소형교회가 중형교회로 넘어갈 때 교회 성장은 기획적으로 넘어가는 단기와 장기 기획의 연속 과정”이라며 “연간 계획은 물론 분기별, 월간 계획이 철저히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획목회는 목회의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 서북부 하면 서울 최하위 서민 70여만이다 최근 중산층 10여만명이 유입된 지역이다. 이곳에서 서광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하 2층 지상 9층의 교회 건물을 건축했다”며 “성장동력은 치유 사역, 대담한 건축, 영력을 유지하는 지도력에 있었다. 무엇보다 기도과 치유사역은 목양성장의 주요인이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목사는 “소형교회에서 중형교회로 가는 제1관문은 전도 숫자 돌파다. 전도 은사자가 시범을 보이고 다른 신자들이 따라하는 총동원 전도가 중요하다”며 “또한 가시성 있는 건물 위치 선정과 건물 건축이 중요하다. 중형교회 확립은 시설 확충, 즉 적기 적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선교지도자들 ‘타겟2030·MT2030운동’ 논의

제10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 12월 8~10일 개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가 주최하는 제10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이하 한선지포)이 오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간 ACTS29비전빌리지(구 온누리선교센터)에서 진행된다. “TARGET2030·MT2030운동

의 조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교단, 선교단체 지도자 및 실무자, 목회자, 선교학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TARGET2030·MT2030운동 1차 5개년 계획을 평가하고 내년 부터 2015년까지의 2차 5개년 계

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TARGET2030(타겟2030, 2030년까지 10만 정명선교사 파송)과 MT2030(2030년까지 100만 선교사역자 파송)은 단지 수치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며, 5개년 계획까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세워진 상황이다.

KWMA 사무총장 한정국 목사는 “첫 5년 동안 타겟2030 운동을 추진해보니 이 운동의 초점은 단순히 10만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선교의 질적 성숙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선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선교사를 발굴하여 훈련, 파송하고 선교현장에 맞는 상황화 된 선교전략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전방개척선교를 하기 위한 선교운동”이라고 밝혔다.

〈이희희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OPEN 7DAYS A WEEK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민중기 칼럼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00년 이후에 나타난 영국 청교도 운동의 대표적 목회자입니다. 청교도

(Puritans)는 칼빈의 영향을 받아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청교도는 자신이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고, 신앙의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역시 청교도의 탁월한 지도자로서 청교도의 거룩한 구별운동은 결혼, 우정, 오락에서 시작하여, 군대생활, 정치, 비즈니스 등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백스터는 일하지 않고 먹는 유행계층의 사람을 "더러운 세대"로 정죄하면서 노동은 신자다움을 드러내는 선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6시간 이상 잠을 자서는 아니되며, 너

무 기도를 길게 하므로 노동을 즐겨서는 아니된다고 하였고, "정직한 비즈니스"야말로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우리의 열정을 소진시킬 만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로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공식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그의 '거룩한 지식'은 정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견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백스터는 23세에 안수

다. ... 나는 잠들어도 내가 뿌린 씨앗은 자라서 세상에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한 말이 증명합니다. 리처드 백스터와 같은 청교도 목사의 상당부분은 영국에서 낮은 귀족인 "신사"(紳

리처드 백스터는 기독교의 종교개혁 이후, "행위와 공로의 기독교"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독교"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개인구원의 기독교"로 남아있던 것을 "소명과 사회변혁의 종교"로 바꾸었습니다. 청교도정신은 영국개혁과 미국건국의 정신적 기초가 됩니다.



리처드 백스터의 청교도 정신

는 군목의 경험이 있는 가장 열정적인 목회자이기도 하였으며, 목회지에서 그 동네 사람들을 대부분 회심시키는 훌륭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역의 열매는 그의 학식이나 총명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법학 정규교육을 받기 원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독학으

를 받은 이후, 전 생애를 복음을 위해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크롬웰 앞에서도 설교하였고, 많은 저술을 남기되 교리, 변증, 윤리, 전도, 경건, 묵회, 교회에 관련된 수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그의 유언, "나는 죽어도 복음은 죽지 않는다. 교회는 죽지 않는

士, gentry)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사라는 말은 예의바르고 성품이 너그러운 존경할 만한 사람을 뜻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사람들을 신사적으로 만듭니다.

복음의 말씀은 사람의 내면을 너그럽고 부드럽게 만들며, 자신뿐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합니다.

양성필 칼럼



양성필 목사
베델한인교회 행정담당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12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전날까지 세족식을 베푸시며 제자들에게 섬김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하셨습니다. 월 세 없이 제자훈련과 치유사역과 귀신을 내쫓고,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는 특별한 우정을 맺으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님께서 Event에 집중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오

신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나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많은 Event를 하셨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한 Event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Event를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을 저는 Eventism(행사중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지만 오늘날의 행사중심 교회를 설명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적지 않은 교회가 Eventism Church(행사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Event가 아니라, 교회부흥, 사람을 모으기 위한 Event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법입니다.

선행은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칭찬을 위한 수단이 되면 결모양은 똑같아도 내용이 달라지고, 의미가 퇴색되며, 상급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에 따른 칭찬은 당연하지만, 칭찬을 위한 선행이 되면 그 선행은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선할 때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을 위한 복음전파가 된다면, 의미가 퇴색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그 복음이 교회에 사람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예수 없는 복음이 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Evangelism(복

의 기도시간이 될 때 즈음이면 시장 어귀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언어, 기도가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도가 아니

완성 청두 복문 근처에는 예전부터 식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짐을 날라주는 짐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짐꾼들이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채기름을 날라주는 짐꾼중의 한 사람이 작은 쇠고기

려는 손님으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파 두부요리 이야기가 13년도 아니고 13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한 여인의 작은 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선행이 가게의 장사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었을 겁니다.

짐꾼에게 베풀어준 마파두부 한 접시에 관한 이야기가 130년이 넘는 지금까지 전해내려오고, 2천년이 넘는 세월동안 변함없이 기록과 함께 이어지는 십자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착함'이 주는 감동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1:6)" 무조건적인 희생의 복음이 주는 감격입니다. 그래서 Eventism(행사중심)에는 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Evangelism)에는 무한한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 그럴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늘나라로 인도합니다.

한인교회와 한국교회와 Eventism Church(행사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Evangelism Church(복음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Eventism(행사중심)을 거부합니다

음이 아니라 Eventism(행사중심)이 되기 십상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유대인

라 외식이라고 단언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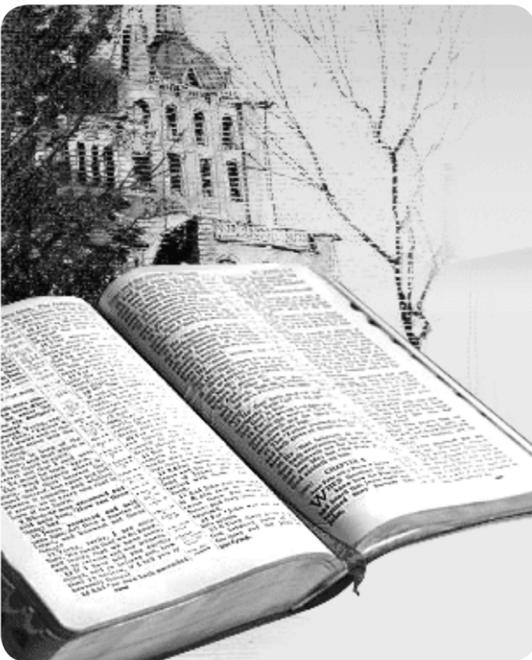
마파두부 요리의 유래를 아시나요? 1874년 중국 서남부의 쓰

덩어리를 하나 들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천푸춘이란 식당주인을 찾아와 그의 부인 천리우에게 "죄송하지만 오늘은 돈이 없어서 요리를 주문할 수는 없고 이 쇠고기와 유채기름으로 두부를 좀 지켜주실 수 없나요?" 부탁을 하더랍니다.

워낙 마음 좋기로 소문난 천리우라는 여인은 눈물이 속 빠질 정도로 맵고 뜨거우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내는 두부요리를 즉석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부요리가 소문이 퍼져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천리우라는 부인의 얼굴에 곰보자국이 있다고 해서 이 요리의 이름을 일명 '곰보부인 두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중국어로 곰보라는 뜻의 '마(麻)'란 글자에다가 부인이라는 '파(婆)'를 붙여서 '마파두부', '곰보부인 두부' 요리라고 불리게 되었고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식당에는 원조 마파두부를 먹어보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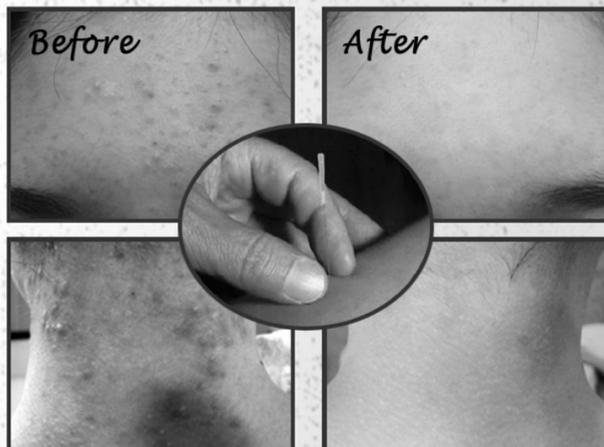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꾸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T.213-380-0853

진유철 칼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활 속에서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

만 받은 은혜로 올바르게 신앙 생활 잘 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율법학교 학생이 스승에게 와서 스스로 탐비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랑을 하니 스승이 “그 자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들판의 풀을 먹을 수 있으며, 날마다 채찍으로 세 번씩 제 몸을 때리며 훈련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귀를 가리키며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맨땅 위에서 자며, 들판의 풀을 먹고, 날마다 세 번 이상 채찍으로 맞는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탐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중요한 것은 걸

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조건이 아니라 올바른 적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똑 같은 사건도 사람들은 다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인 공로

할 한국 천안함 사태를 놓고도 북한이 저지른 일이다, 아니라고 갈라져 자기주장들을 펴는 것을 보십시오.

또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컨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 시험을 당해 범죄죄 말고’(395장)를 싫어하게 되고, 돼지꿈 자주 꾸고 로또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

서.’(642장)를 좋아하게 되고, 아내에게 사족을 못 쓰는 공처가 남편은 ‘잎드러 비는 말 들으소서’(511장)를 부르면 부르르 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예배드릴 때는 ‘산마다 불이 탄다.’(311장)는 부르지 말아야 하고, 해양경비대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물 건너 생명줄 던

지어라.’(258장)를 부르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성공하지 못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은혜나 깨달음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 할 일보다 남의 일에 신경을 더 씁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 목사

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또 세상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작은 일은 우습게 보고 큰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늘어나면 교회를 이

부분을 고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할 일을 안 하는 것이나, 다음에 직분 받고 나면 하겠다는 태도 등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적용하는 분명한 현상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현상이 없이 남의 현장을 기웃거리거나 간섭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하겠다고 현장에 와서는 이런 지적, 저런 지적만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곳은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 분들이 있는 곳에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그럼 내가 거기서 기도해서 기도의 불을 붙이면 그곳이 바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럼 내가 거기서 사랑의 수고로 본을 보이면 그곳이 열매 맺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 학교, 가정이라면 그곳이 내가 받은 은혜를 실천할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욱 크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의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열매를 맺으려면

김지성 칼럼



김 지 성 목사
글발산선교회

이번 주간 론델(Ron Mehl)이라는 목사님이 쓴 ‘천국을 뒤흔드는 기도(A Prayer That Moves

Heaven)’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론델 목사님은 오레곤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기도와 더불어 백혈병 투병에서 회복을 경험하신 목회자이십니다. 고통은 겸손의 자리에 나가게 만들어 주며, 그 겸손함이 결국 투명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분명한 듯 합니다.

이 부분을 접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목격한 것, 또는 체험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접한 사람은 무의식중에 그 사실을 진리라고 확신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히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사실의 배후에 존재

하는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론델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엄청난 위험에 직면했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삶, 자녀, 결혼, 사역 등이 모두 절망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속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자만이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모두 진리는 아닙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해석되어질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실을 풀어가는 능력이 진리를 찾는 능력이 됨을 다시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가 경험한 사실을 해석

김세환 칼럼



김 세 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어렸을 때, 동네 마을회관 앞에 강아지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들의 이름이 특이했습니다. 한 놈은 “유월이”였고, 다른 한 놈은 “구월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앞으로 “개를 잡게 될 달”의 이름이었습니다. “유월이”는 6월이면 돌아가실 예정이고, “구월이”는 9월 달에 그 명(命)을 다할 운명입니다. 먹을 것이 지질도 없던 시절, 시간 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동네 할아버지들이 씌지 돈을 털어 모아 공동 명의로 강아지 두 마리를 구입한 것입니다. 정말 그 이름대로 시월부터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음

식을 가져다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할아버지들의 무서운 사랑(?)을 포근한 사랑으로 믿고 졸졸 따르다가 처량한 최후를 맞이

야 했을 강아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언어와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유학생들에게 접

가 아님을 하루하루 절감하게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순리(順理)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당한 이득이나 일확천금의 한탕주의로 인생 대 반전을 추구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일용한 양식이 아님에 시달리는 유학생들에게 접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근해서 진실한 우정인양 살갑게 대해 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피눈물을 쏟게 만드는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체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굶은 한 솥과 함께 막막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는 무참하게 사기를 치는 냉혈한들에 관한 기사들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모질 수가 있을까!” 싶은 일들이 주변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축복 받은 땅”, “기회의 나라”라고 불리우던 이 미국도 마음의 무장 해제를 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지대”(Comfort Zone)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오뉴월 복날의 강아지들과 같은 운명으로 삶을 마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열떨결에 자신의 속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정해야 했던 베드로 사도는 훗날 자신의 실수를 곱씹으며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벧전 5:8-9)

현실을 순수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약한 영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사실’이 꼭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론델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엄청난 위험에 직면했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삶, 자녀, 결혼, 사역 등이 모두 절망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보다

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시를 면제함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학력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임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판매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Boston Hub Dental & Implant Center
보스턴 덴탈 & 임플란트 센터

10년 임플란트 식립 경험 전문 치과의사와 보철 전문의가 최상의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물 제작임플란트 성공은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과 치주 처치 및 보철물 제작에 달려 있습니다.

무통 임플란트,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 *턱터 박상용 보철 전문의, *턱터 최인호 임플란트 전문의
수면 임플란트 (V injection), 드릴 없이 심는 임플란트, 연세대학교 임플란트 보스턴 임플란트
방치 즉시 임플란트 및 즉시 보철 제작 (Case by Case) 보스턴 치과대학 졸업 과정 수료

● PRP & PRF 시술 (임플란트 주위 골 생성 촉진)

오픈기념 특별할인 임플란트 \$999 (limited 보철포함)
검진 + X-Ray + 클리닉 = \$40

치과 이식, 보철치료, 신경치료, 구강외과, 보철환양: PPO, HMOA
치주치료, TMI (악관절치료, 스피린트), TEL: 714, 638, 4042 / 714, 638, 2141 (한국어)
보철 (주름, 근육에 의한 사각턱), 치아교정 13031 Kerry St., Garden Grove, CA 92644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수 있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중업원상해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험,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 323-378-6213 - Toll Free: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9일, 12월 19일 시험대비 CDP 치과기공 면허 응시생 모집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가톨릭기속성 학생모집 (학식,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LA캐atering

주말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용식사)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 신속한 견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

1-800-530-5660 / 1-800-711-0776

카레라이스 \$1.00 (1인당)
짜장소스 \$1.00 (1인당)
유채콩나물국 \$1.00 (1인당)
김치미역국 \$1.00 (1인당)
아미비빔밥 \$1.20 (1인당)
고기비빔밥 \$1.80 (1인당)
육개장 \$1.5 (1인당)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건과류, 각종 농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상점 및 그라지용 Bottless Shelving,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323) 855-5687 / (213) 200-3050
646 S. San Pedro St. LA CA 90014 (산페드로 St, 6가 7가 사이)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포드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2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방수,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CAP CONSTRUCTION
213-327-9929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 (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 200-7552 (213) 663-2306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p> <p>TEL : 562-926-1023, 4691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p>	<p>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p> <p>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p>	 <p>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p>*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p> <p>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p>
 <p>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p> <p>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p>	<p>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p> <p>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11월 8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p>	<p>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p> <p>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p>
 <p>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p> <p>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p> <p>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p>	 <p>캘리포니아 라노대학교 California university llano</p> <p>T: 714-490-0065 F: 714-333-4990 520N. Brookhurst St.Ste.120 Anaheim CA92801 www.californiauniversityllano.org</p>	<p>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p> <p>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p>
<p>플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p> <p>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p> <p>TEL : 213-440-0125 1325 12th Ave. LA CA 90019</p>	<p>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p> <p>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p>
 <p>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p> <p>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p>	<p>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p> <p>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p> <p>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p>	 <p>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p> <p>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p> <p>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p>

\$4.99/월

더 이상 국제전화 플랜에 별도로 가입하거나 전화카드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밀리 알뜰 플랜

지금 가입하시면,
한국 가족들이 국내 통화하듯 부담 없이 미국으로 전화하는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10월 16일 ~ 10월 31일 가입자에 한함

- 1 미국 전화번호는 물론 한국 전화번호 무료 제공!
초저가 요금으로
- 2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이용!
미국, 캐나다 2센트/분, 한국 유선전화 2.6센트/분
- 3 기존 전화기, 전화번호 그대로!
- 4 초저가 요금으로 아이토크글로벌 이용 가능!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국제전화
- 5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 이용
- 6 아이토크비비 고객간 무료통화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9.99/월, Tax포함
(*첫 3개월간, 이후 \$24.99/월)

- 로컬, 미국, 캐나다 장거리,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 지금 가입하시면,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개통비(\$29.99) 면제!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가입문의 **1-800-872-2902** 1-800-875-8318 (고객지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30분(EST)

www.Korea.iTalkBB.com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패밀리 알뜰 플랜 가입자에게는 월이용료 이외에 세금 및 기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글로벌 플랜과 로컬 플랜은 동일한 요금으로 운영되며 총 19개월 간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서비스를 재신청하는 경우 \$5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 된 서비스 요금을 합산해 부과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계약 플랜 가입자의 패밀리 알뜰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하셔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정보를 얻으세요!

♥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장구대 대신 연필하고 간편한 온라인 코퍼레이트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미국에서 가장 큰 푸엔테힐스 현대 딜러

목회자 자체 용자 및 원가 세일

현재 남가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거나, 없으셔도 자체 용자 해 드리거나 원가 세일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년 pre-owned 쏘나타 한정)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11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쏘나타



• **성능, 디자인**으로 중형차를 석권하다. 최저 가격 보장

2011 신형 제네시스



• 대형 **세단**의 중후함과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최저 payment 보장

2011년 신형 제네시스 coupe



• 한 번만 타보세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차. 만족도 보장

2011 최신형 투싼



• 보시는 순간 매료됨 갖고 싶은 귀여운 **SUV**



상기 모든 모델을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진심으로 만족 하실 것입니다.

11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 2007 BMW (WHITE) 328i STK PZ70863 \$22,888
- 2007 BMW (BLACK) 328XI STK PP31167 \$26,888
- 2007 HUMMER (YELLOW) H3 STK P126552 \$24,888
- 2008 HYUNDAI (GOLD) ENTOURAGE STK P051414 \$18,488
- 2009 TOYOTA (WHITE) TACOMA STK P640770 \$16,999

- 매니저가 권하는 중고차 세일 -

- ▶ 2007 HYUNDAI AZERA GRAY STK P185167 \$17,888
- ▶ 2008 HYUNDAI AZERA BLACK STK P332058 \$20,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GRAY STK P046436 \$29,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SILVER STK P019812 \$28,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WHITE STK P048693 \$34,888
- ▶ 2010 HYUNDAI SANTA FE GRAY STK P337186 \$21,888
- ▶ 2009 HYUNDAI SONATA BLACK STK P440119 \$13,888
- ▶ 2010 HYUNDAI SONATA BEIGE STK P581165 \$15,888
- ▶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 P597224 \$14,888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22,888



2009 HYUNDAI ELANTRA BLUE STK P755456 \$14,9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 P018925 \$28,900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STK P253216 \$17,995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et you \$1,000.